‘골 맛’ 알아버린 그녀들 “풋살 놓지 못해요”

‘골때녀’ 방송 출연 ‘광주FC위민’ 이가영·김선영씨

‘K리그 퀸컵’ 올스타 ‘팀 K리그’ 멤버로 골때녀와 승부
“교사·학원강사 본업 끝나면 경기장에서 내내 살아요”

광주·전남 대표 여자 아마추어 축구팀인 ‘광주FC위민’ 소속 이가영(34), 김선영(24)씨는 최근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선수들을 만났다. K리그 각 구단 산하의 여자 축구팀들이 겨룬 ‘K리그 퀸컵’ 대회 참가 선수 중 최종 12명을 선발한 ‘팀 K리그’ 구성 멤버로 SBS 예능프로그램 ‘골때녀’에 출연한 것. ‘올스타전 with K리그’에서 ‘팀 골때녀’를 상대로 활약한 이가영, 김선영씨를 만났다.

“방송 이후 주변에서 광주 이름을 날리고 왔다고 축하해줬어요. 평소 하던대로 잘 보여주자 생각했는데,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실력 발휘를 못 한 것 같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설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이기고 말거예요.(웃음)”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두 사람은 이영표 감독 등 스포츠 스타를 만나고, 감독 매치를 직관할 수 있었던 이번 방송이 값진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골 때리는 그녀들’이 파일럿 방송할 때부터 애청자였던 가영씨는 이번 출연으로 ‘성덕’이 됐다며 흐뭇해했다.

‘팀 K리그’는 골때녀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패배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에이스였던 선영씨는 팀이 공격할 땐 팬텀 드리블 등 현란한 발 기술과 함께 깔끔한 수비를 선보였다. 상대방의 거친 압박을 견뎌내며 경기 흐름을 줄곧 내주지 않았던 선영씨는 “볼 경합 중 발바닥을 이용한 드리블로 상대방을 속이며 같은 팀에게 힐패스를 성공했던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웃어보였다.

공을 다루는 기본기가 탄탄한 가영씨가 자신있어 하는 건 팀 동료들과 함께 발을 맞추며 상대를 속이는 ‘2대1 패스’다.

“공을 받아 달려오는 선수에게 살짝 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 다시 봐도 잘했더라고요. 제 패스로 누군가 골을 넣었을 때 쾌감이 있고요. 경기할 때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이 맛에 풋살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본업이 따로 있지만, 일 외의 대부분 시간을 쏟을 만큼 축구에 진심이다. 광주 서석중학교 기술가정 교사인 가영씨는 퇴근 이후 혼성 풋살을 포함해 주 3~4회 광주여자풋살팀 ‘FS푸른길’에서 활동 중이다. 광주FC위민에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풋살팀에 들어간 그는 가족들과 동료 교사, 제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뛰고 있다.

“평소 즐겨봤던 골때녀에서 일반인 팀과 겨루는 걸 보며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꿈같은 일이 이뤄진거죠. 스포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은 이루말할 수 없어요. 지금처럼 즐기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싶습니다.”

수학 학원 강사인 선영씨는 2020년부터 ‘FS도토리’에서 주2회 이상 풋살을 배워왔다. 지난해 퀸컵 대회에서 득점 4위를 기록한 선영씨는 학생 때부터 축구를 즐겼고, 인대 파열에도 보호대를 하고 연습을 할 정도로 애정이 깊다. 방송 출연을 앞두고도 틈틈이 시간을 내 부족한 부분을 단련했다.

최근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한 광주FC위민 김선영(왼쪽)·이가영 씨. 〈김선영씨 제공〉

“풋살은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경기를 잘 뛴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짜릿하고요. ‘저 선수는 절대 못 이겨’라고 들을 수 있도록 더 힘껏 뛰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축구가 취미 그 이상 삶의 일부로 자리잡은 두 사람은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이었다. 방송 이후 더 욕심이 생겼다는 두 사람은 못 말리는 축구 열정으로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日 마이니치 신문 “광주일보 계엄 사태 보도, 언론 역할 보여줬다”

편집국 찾아 계엄 호외 발행·조기 대선 전망 등 취재

일본 3대 신문으로 꼽히는 마이니치 신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가결안 통과 당시 호외를 제작한 광주일보사를 방문 취재했다.

후쿠오카 시즈야〈사진〉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 서울 지국장은 지난 7일 광주일보사를 방문해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삭제·검열된 기사, 호외 발행 과정에 대해 취재하고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진행될 ‘조기 대선’ 전망에 대해 최권일 편집국장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취재진은 광주일보사가 5·18민주화운동 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사의 역할을 한 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설 특집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주제로 현대사의 석학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인터뷰한 점 등을 크게 칭찬했다.

후쿠오카 지국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어 기사를

쓸 수 없었다”며 “당시 빠른 판단으로 1시간 안에 호외를 발행한 광주일보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쿠오카 지국장은 “광주는 5·18 당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잘 알고 있어 다른 언론사보다 빠르게 잘 대응한 것 같다”며 “광주일보가 호외를 발행함으로써 큰 위기를 알린 노력은 신문 같은 ‘전통 매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마이니치 신문은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과 함께 ‘일본 3대 신문’으로 꼽힌다. 발행부수는 약 192만부이며 1872년 창간, 일본 현존 최고(最古)의 신문사다.

/김해나 기자 khn@

후쿠오카 스즈야 마이니치 신문사 서울 지국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7일 광주일보사를 방문, 조기 대선 전망 등에 대해 취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꿈여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문화 DAY~!’ 주말체험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꿈여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8일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꿈여울 문화 DAY~!’ 주말체험을 진행했다.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제공〉

광주대, 남구가족센터에 아동도서 기증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호심기념도서관이 최근 광주 남구가족센터에 ‘서(書)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기증한 아동도서 300여 권을 기증했다. 〈광주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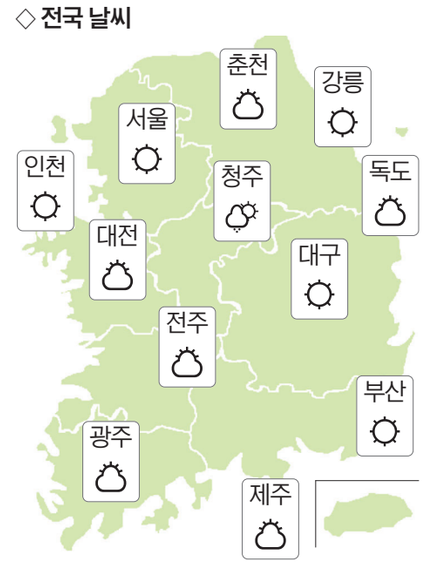
해뜸	07:24	달뜸	15:40
해짐	18:10	달짐	06:00

동장군 기승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 곳곳 눈 날리다 오후부터 개겠다.

광주	구름많음	-4/4	보성	구름많음	-6/3
목포	눈온뒤 갬	-2/3	순천	구름많음	-4/5
여수	맑음	-3/4	영광	눈온뒤 갬	-5/2
나주	구름많음	-5/4	진도	구름많음	-2/4
완도	구름많음	-2/5	전주	구름많음	-6/3
구례	구름많음	-6/4	군산	눈온뒤 갬	-6/3
강진	구름많음	-4/5	남원	구름많음	-11/3
해남	흐린뒤 맑음	-4/4	흑산도	흐린뒤 맑음	1/5
장성	흐린뒤 맑음	-6/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북)	0.5~1.5	0.5~1.0
	먼바다(남)	0.5~1.5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서)	0.5~1.5	0.5~1.5
	먼바다(동)	0.5~1.5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38	00:03
	18:39	13:12
여수	01:31	08:16
	14:28	20:19

◇ 생활지수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4/9	3/9	-3/6

14(금)	15(토)	16(일)
-1/9	0/8	1/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18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